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③ 시동생의 잘못을 마음으로 안아준다

시동생과의 갈등...

A씨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다. 그런데 결혼 후 남모르게 항상 가슴 속에 응어리 같은 아픔과 원망이 있었다. 하나뿐인 시동생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의절을 했기 때문이다. 그 긴 세월을 안 보고 살아 온 것이었다. 이유는 시동생이 집안에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원래 A씨의 시택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허필이면 A씨가 시집오고 1년도 지나기 전에 그 많은 재산을 완전히 날리게 되었다. 바로 시동생이 사업한다고 몰래 전 재산을 투자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리 된 것이다.

그 때부터 A씨의 고생이 시작되었다. 집까지 차압이 들어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지내며 갖은 일을 다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갔다.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고생했어. 더군다나 부자집에 시집갔다고 좋아하던 친정 식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마음고생이 더 컸어." 온 식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하다 보니 남편은 물론, 시부모도 시동생을 원망하고 외면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내 이름

어느 날 A씨의 남편은 시동생을 불러 놓고 "너 때문이 아니므로 너를 우리 가족으로 생각 않겠

다"라고 하였다. 부모님과 A씨도 묵묵히 동의한 것이었다. 그 후 시동생은 집에 발길을 끊었고, 제사 때도 오지 않았으나 식구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며 A씨는 점점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인과응보, 인연, 모든 것은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업에 따라 받게 된다는 말씀이 가장 가슴에 다가왔다. 결국 모든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는 말씀이 가슴을 치는 듯 아팠다. 그래도 시동생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도반들에게 털어 놓았다.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의를

이 어떻게요? 제사에도 못 오게 하고." "아니, 다음 생에도 또 만나서 그렇게 지내려고 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선 용서하라고요. 그런 악연은 녹이고 벗어나야지."

과연 부처님의 마음이라면 시동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김씨는 문득 시동생의 입장이 되어 보았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 된 마음이 들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외로웠을까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아프게 느껴졌다. 그 전에는 본인이 힘든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시동생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은 것이었다. 이제 보니 시동생은 사업이 망한데다가 집안에 죄를 지었다는 고통스런 마음으로 살면서, 수십 년간 받을 벌을 다 받았을 것 같았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려왔다.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A씨는 가족들을 설득하여 시동생 내외를 집으로 초청하게 되었다. 정성들여 저녁공양을 마련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그 동안 힘드셨죠. 오늘부터 지난 일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앞으로 서로 돕고 잘 지내기로 해요"하고 말하였다. 시동생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부모님과 온 식구도 같이 울었다. 이 이야기를 하며 A씨는 또 울고 있었다.

내가 아닌 부처님 마음으로

A씨는 '내 탓'이라는 중생의 마음에서 '우리의 탓'이라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화했습니다. 또 시동생을 '나의 마음'이 아닌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과 상황은 달랐던 것이 없습니다. 오직 A씨의 마음이 변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사업하다 전재산 날린 시동생과 '의절'

도반들 "다음생에도 그렇게 만나고 싶으세요?"

내가 먼저 마음 여니 온 집안이 편안해져

끊은 채 죽으면 이게 업이 되겠지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반들은 진심으로 염려하고 격려해 주었다. 무엇보다 시동생을 용서하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었다. "전생에는 자기가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용서 하라고요." "그건 불효 중의 불효예요. 조상님들

닌 행 계 니 판

부산 한희불교복지대 호스피스 과정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음 한희불교복지대학이 호스피스 교육 및 카운슬링 과정을 개강한다. 카운슬링 교육은 3월 12일, 호스피스 교육은 13일 개강이다. 부산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051)203-9436

화엄사 우리 밀 밭기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가 2월 23~25일 '우리 밀 밭기 여행' 가족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구례 우리 밀밭에서 다양한 밀 밭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새 학기,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061)782-7600

대성사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성법회
서울 대성사는 2월 24일 토요일 오후 8시~12시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성법회'를 봉행한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통해 인생을 참되게 살자는 발원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법회다. (02)583-1475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정초 산림기도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2월 20일~3월 12일 정초 산림기도를 봉행한다. 일 년 내내 가정의 평안과 부처님 도량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이다. 21일에는 설법기도도 봉행할 계획이다. (054)474-8228

여여선원 화엄산중기도
부산 범어사 포교원인 여여선원이 2월 20일~3월 5일 정초 화엄산중기도를 봉행한다. 20일 오전 10시에 임재 5일 오전 10시에 회향한다. 한편 2월 27일 오전 7시에는 남해 보리암으로 정초 성지순례를 떠난다. (051)853-5486

조계사 영가천도 방생법회
서울 조계사가 3월 5일 '불기2551년 동안 거위향 영가천도 방생법회'를 떠난다. 오전 6시 30분 출발하는 이날 방생법회는 고운사에서 진행되며, 한국조류보호협회와 함께하는 조류 방생이라 조계사의 방생법회는 독특함을 자랑한다. (02)732-2187



부처님 감사합니다

일흔살에 부르는 사모곡 (하)

박을선 부산시 사하구 정림2동

갑작스러운 변화의 소용돌이는 매우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오로지 부처님께 빌고 또 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감이 남긴 집을 팔아 빚 정리를 하고 나니, 제 몸이 이상이 오게 됐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다니고 화가 치밀어 온 손가락을 비늘로 킁킁 찌러 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은 미치광이의 형상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았고 집은 온통 먼지가 쌓여 발 디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세탁기가 옆에 있어도 빨래에서 곰팡이가 필 정도로 쌓아 놓고, 음식쓰레기에는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등 완전히 정신을 잃은채 심한 우울증으로 만 5년을 보냈습니다.

죽는 일만 상상하고 15층 옥상에 올라가 떨어질까 공리를 했고 9층인 우리집 베란다에서 매일 문을 열고 아래만을 보는 그런 생활이 전부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천정아버님 제사 3일전에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동생이 "언니, 빨리 오세요. 바람도 쏘이고 아버지 제사를 나와 함께 지내 봅시다"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그 말에 짐을 싸고 나들이 준비를 해 출출을 했습니다.

장 바깥으로 비추이는 세상이 새삼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다시 환생한 듯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 동생과 같이 아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스님을 모시고 함께 염불독경을 했지요. 돌아간 시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 온 시간들을 돌아 보았습니다. 세 번의 기적을 얻게 된 삶의 등불은 그 누가 밝혀 준 것일까요?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토록 자식을 위해 부처님 전에 머리 조아리고 기도했던 덕이고, 무주상 보시로 살아오신 어머니의 선업에 따른 선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무주상 보시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일생을 통해 공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원앙어선을 타고 나간 아들도 건강하게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있고, 결혼가정의 슬픔을 거둔히 이겨낸 손주 남매도 자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큰 손녀는 학교에서 선발하는 인재 두 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혀 지금 필리핀에서 연수중입니다. 얼마 전 "잠깐 귀국해 할머니 뵈러 가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손녀 만났 기쁨에 신이 났습니다. 장손은 사병으로 복무하며 100일 휴가를 받아 나왔습니다. 능글한 대한의 국군으로 변모한 손자를 가슴에 포옹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고 가며 몸심양면으로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던 호너였죠. 막내딸은 14년 전 프랑스 유학을 떠나 그곳 파리 소르본느 대학 학부를 마치고 파리에 눌러앉았습니다. 자신의 프랑스 생활 등을 한국에서 책으로 펴내면서 한 잡지에 생활한 프랑스 소식을 전하는 전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도 다 잘 풀려나가는 것이 모두 어머니의 공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불심, 자비심에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부처님을 염원하면서 제 생활에 바른 지표를 던져보려고 노력합니다.

독실한 불자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며 평생을 사셨던 어머니의 일을 닦아주고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근면 성실 효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가지로 확실하게 실천하면 너희들 자신은

이 험난한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소외된 곳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펴주고 얘기하곤 하죠. 나 자신의 존재를 아끼고 소중하게 결핵한 마음으로 바른 불심을 담는다면 인생행로 긴 여정은 광명과 행복이 자신을 갖게 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겉은 자만이 갈 수 있다"를 가훈으로 삼고 실천하기를 외쳐봅니다.

"어머니, 제겐 부처님이라는 어머니, 감사하며 오늘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는 존재로 힘차게 걷고 또 걸으면서 마음 깊이 불심을 담겠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엔 세안을 깨끗이 하고 예뻐를 읊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자세로 자신에게 열심히 사는 엄마했다는 평을 받고 손자에게 매력과 지혜가 있는 할머니로, 이웃에는 정으로 니룰 수 있는 덕을 쌓겠습니다. 오늘도 큰스님의 법어를 낭송하면서 마음을 다져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듯이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끝)



그림: 문병성

우울증 속 '죽음' 생각하며 5년 지내

제주도 여행 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불교명상지도자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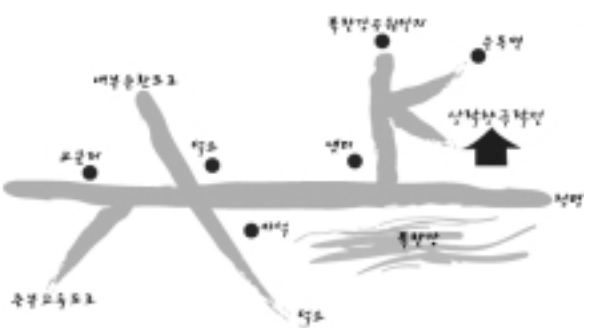
보현 김목자 박사 (세계불교명상센터 원장)

- (1)가정과 직장에서 중생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
- (2)부처님의 깨달음을 체험하여 생사고뇌에서 해탈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 (3)신체허약 · 정신 빈곤 · 감정불화 등으로 고민, 신심건강을 희망하시는 분

- ① 일반과정 : 건강 · 두뇌개발 · 단주 · 금연 · 비만클리닉 - 제 1차 3개월
- ② 전문과정 : 견성성불로 생사해탈을 목적으로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 ③ 지도자과정(선착순 20명 모집) : 명상센터를 개원,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 일시 : 2007년 3월 24일(토) 오후 3시 개원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철야정진,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진 : 자유선택)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 185 상락향수도원 ☎031)584-0657, 010-8700-3619, 011-447-1122(원장)



세계불교법왕청 몽골불교대학부설 세계불교명상센터



델브렐스님 (몽골 대표교인)

세계불교명상센터 교통안내

- 기차 : 경춘선(청량리역 출발) , 대성리역 하차, 서북 2km
- 버스 : 청량리역 앞 출발, 1330번(청평행) 765번(대성리행), 1115번(잠실-대성리) 대성리 민박촌 앞 하차
- 택시 : 마석 1만원, 청평 1만 2천원